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모잠비크





Republic of Mozambique

2022년 8월 3일 | 조사역(G3) 김혜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99천 km <sup>2</sup> 	<b>인구</b> 3,309만명 (2021년 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61.0억 달러 (2021년 기준) 	<b>1인당GDP</b> 500.7 달러 (2021년 기준) 	<b>통화단위</b> Metical (MT) 	<b>평균환율(U\$기준)</b> 65.47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약 3,30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와 접경하고 있음.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알루미늄·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2017년 이후 천연가스 개발지역인 북부의 카보 델가도 주에서 IS 무장단체가 활동하며 치안이 크게 악화되어 대규모의 실항민이 발생하고 주요 LNG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음.
- 46년째 장기 집권 중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2019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하여 정치기반이 강화되었으며, Filipe Nyusi 대통령 또한 연임에 성공하여 2025년 1월까지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9년 FRELIMO와 8월 반정부 조직인 모잠비크 국민저항(RENAMO)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국내정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2016년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무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폭로된 후 IMF, 원조 공여국 등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5월 IMF가 4,560만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Extended Credit Facility 제공을 승인하면서 지원을 재개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3. 8. 11 수교 (북한과는 1975. 6. 25)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7),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18)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72,573	2,593,094	79,026	신변잡화,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수 입	135,431	230,461	269,630	석탄, 동제품, 기호식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8건, 42,962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3.4	2.3	-1.2	2.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9	2.8	3.1	5.7	8.5
재정수지/GDP	-5.6	-0.1	-5.1	-3.6	-3.0

자료: IMF

### 2015년까지 6~8%대의 높은 경제성장 이후 2016년부터 성장세 둔화

- 모잠비크 경제는 1994년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정부의 거시경제 개혁정책 추진, 국제 원자재 시장 활황, 대외원조 수혜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가스전, 탄광, 인프라 등) 등이 이어진 데 힘입어 2015년까지 평균 6~8%대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자원개발)의 와중에 2016년 대규모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권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폭로된 후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원조공여국들이 모잠비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원조를 중단하였으며, 메티칼화 가치 하락, 자연재해(대홍수·사이클론)에 따른 농업 피해 등의 악재가 겹쳐 2016~19년 경제성장률은 2~3%대로 크게 둔화되었음.
- 2020년 모잠비크 경제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석탄·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 및 광물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광업 부문의 부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및 관광업 위축, 300억 달러 규모의 ExxonMobil의 LNG 천연가스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FID) 연기 등으로 인해 -1.2%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1년 수출실적 개선으로 2%대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 2023년 이후 5%대 성장 예상

- 2021년 모잠비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실적 개선으로 2.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2022년에는 고정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와 천연가스 개발,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보다 높은 3%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LNG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부터는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Fitch에 의하면 2022년 모잠비크의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1월)와 2021년 8월 시행된 2년만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 효과를 상쇄해 약 1.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 산업별로 1.5~8.7% 수준(농림업 6.9%, 어업 3.2%, 광업 6.4%, 제조업 6.4% 등)
- 고정투자는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IMF의 신규 프로그램 승인에 따른 재정적 여유 등으로 인해 약 4.6%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경제

- 2023년부터 Eni의 해상 프로젝트로 연간 340만 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이며, 카보 델가도 지역의 치안 문제로 투자를 연기하고 있던 ExxonMobil사가 최종 투자 결정(FID)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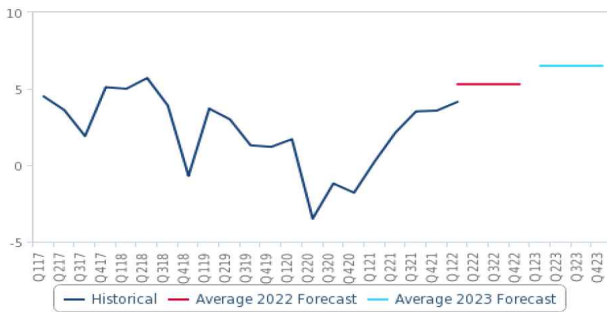
[표 1] 기관별 모잠비크 2022~23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IMF(4월)	세계은행(6월)	EIU(7월)	AfDB(5월)	Fitch Solutions(6월)	IHS Markit(7월)
2022년	3.8	3.6	4.2	3.7	5.3	3.2
2023년	5.0	6.0	5.1	4.5	6.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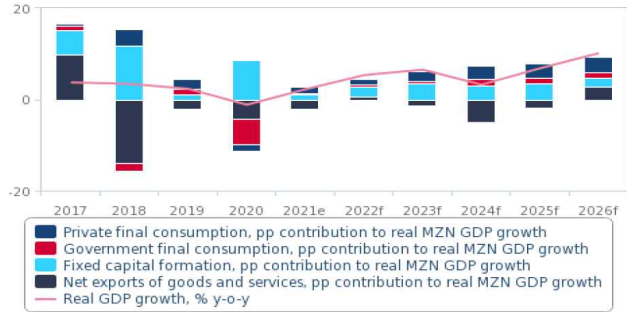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그림 1] 모잠비크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2] GDP 구성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 및 전망



자료: Fitch Solutions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목표물가 제도 도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이후 점차 안정되어 2018년 이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세계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2021년 5%까지 상승했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른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8%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재정적자 축소

- 2020년 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카보 델가도 주 테러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군사적 대응 등으로 GDP의 -5.1%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의 -3.6% 수준으로 축소됨.
- 2022년에는 경기 회복(성장률 3.8% 추정)에 따른 소득 및 법인세 증가, 6월 중 개시된 석유메이저 Eni사의 FLNG(해상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0% 수준까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4,120	-3,022	-3,616	-3,684	-7,262
경상수지/GDP	-29.9	-19.1	-27.6	-22.5	-40.1
상 품 수 지	-972	-2,084	-2,294	-2,281	-5,596
상 품 수 출	5,197	4,669	3,588	5,589	7,392
상 품 수 입	6,169	6,753	5,883	7,870	12,988
외 환 보 유 액	3,015	3,650	3,805	3,200	2,674
총 외 채	23,050	23,962	26,180	24,263	25,720
총외채잔액/GDP	155.3	155.7	186.6	150.7	142.2
D.S.R.	14.3	14.9	18.4	11.9	8.4

자료: IMF, EIU, OECD

### 불균형한 교역조건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적자 폭 축소 예상

- 모잠비크의 교역조건은 매우 불균형한 상황으로, 수출은 광물(석탄, 알루미늄) 및 농수산물(캐슈너트, 새우)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1차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기계류, 건설자재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무역수지는 GDP 대비 20~30% 수준의 극심한 적자를 겪고 있음.
- 2021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해(2.2%)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의 27.6%에서 22.5%로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세계경기 회복이 모잠비크의 주요 수출품(알루미늄, 석탄)의 국제가격 인상과 수출수요 증가로 이어져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55.5%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회복과 LNG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입액이 전년 대비 33.2%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은 소폭 증가하였음.
- 2022년에도 민간소비 회복과 LNG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기준 모잠비크 수출의 약 48.7%를 차지하는 석탄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상승하고 Eni사가 6월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외채상환능력

### 과도한 외채규모 대비 외채상환 능력 부족

- 2016년 20억 달러 규모의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무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밝혀진 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하락하여 IMF, 주요 공여국 등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 및 원조 제공이 중단되었음. 아울러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메티칼화 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모잠비크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카보 델가도 지역의 치안 불안에 따른 대규모 LNG 프로젝트 지연과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감소하였으나, 북부 지역의 치안이 확보되고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외국인투자 유입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모잠비크는 2020년 4월 IMF의 채무지속가능보고서에서 '채무곤경' 상태의 채무위험등급을 부여받음.

[표 2]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및 평균환율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입액 (백만 달러)	3,093	2,293	2,703	2,212	2,337	5,102
평균환율 (미 달러 대비)	63.06	63.58	60.33	62.55	69.47	65.47

자료: UNCTAD, IMF

- 다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IMF, 세계은행 및 원조 공여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잠비크에 긴급성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G20의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에 따라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모잠비크에 대해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어 단기유동성이 개선됨.
- \* 세계은행과 파리클럽에 따르면, 파리클럽 회원국과 G20은 채무상환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
- IMF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9억 달러 규모의 Rapid Credit Facility를,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72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식 지원을 각각 모잠비크에 제공하였음.
- 2022년 5월 IMF는 4,560만 달러 규모의 3년 Extended Credit Facility를 승인하면서 2016년 은닉부채 스캔들 이후 최초로 지원을 재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말 기준 월평균수입액의 3.3개월 수준에 불과한 외환보유액과 GDP의 20~30%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GDP 대비 과도한 외채(GDP의 150.7%) 등의 상황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나, LNG 수출이 시작되면 세입이 증가하면서 외채 비중 또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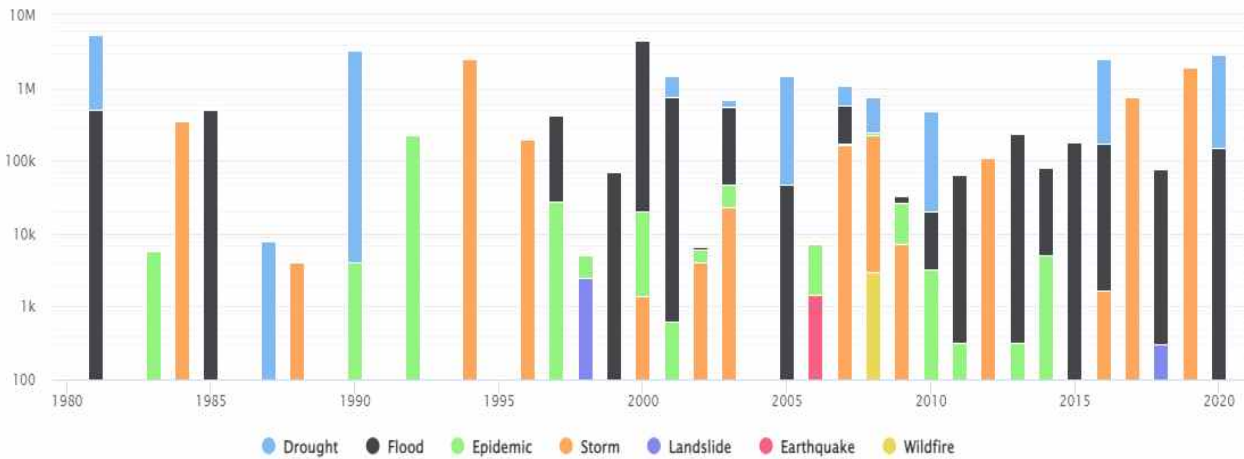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사이클론,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

- 농업은 모잠비크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2020년 기준 GDP의 30.1%(EIU) 및 노동인구의 70.3%(UNDP)를 점유하고 있으나 농업 인프라 부족, 재해관리 능력 부족, 높은 빈곤율 등으로 가뭄, 사이클론,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임.
- 2019년에는 사이클론 '이다이'(3월)와 '케네스'(4월)가 각각 중부와 북부 지역을 강타하여 약 48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으며, 최소 650여명(이다이 602명, 케네스 45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음.
- 2020년 12월 열대성 폭풍 '찰레인'(중부)이, 2021년 1월 사이클론 '엘로이즈'(중부)가 연이어 강타하였으며, 엘로이즈로 인해 약 13.7만 헥타르(총 농경지의 2.8% 규모)의 농경지가 파괴된 한편 이다이로 발생한 9만여 명의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가 파괴되는 이중고를 겪은 바 있음.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열대성 태풍 '아나'와 '두마코', 사이클론 '곰베'의 영향으로 7개 지역에 걸쳐 약 2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음.

[그림 3] 1980~2020년 간 발생한 모잠비크의 주요 자연재해 종류 및 이에 따른 피해 인구 수

단위: 명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 성장잠재력

###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한 대규모 LNG 투자 지역의 치안 악화 및 그로 인한 사업 지연

- 모잠비크는 천연가스와 더불어 석탄,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탄탈럼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며,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옴.
- 2019년 기준 매장량은 흑연 2,500만 톤(세계 5위), 티타늄(티탄철석) 140만 톤, 티타늄(금홍석) 88만 톤, 지르코늄 180만 톤으로 추정됨(U.S. Geological Survey).
- 한편, 천연가스 개발은 모잠비크의 주요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북부 로부마 분지(Rovuma Basin)에 매장된 천연가스 자원은 100~200조  $\text{ft}^3$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Moody's).
- Eni(이탈리아)사 주도의 컨소시엄에 의한 코랄 가스전의 FLNG 프로젝트는 2022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천연가스 개발 지역인 북부의 카보 델가도 주에서 2017년 10월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치안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테러 반경 확대, 현장 직원 피해 사례 발생, 육해상 교통 차단 등으로 LNG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Area 1 사업주인 프랑스의 에너지기업 Total은 LNG 사업지의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잠비크 정부와 2020년 8월 LNG 사업 활동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나, 2021년 3월 사업지 인근 Palma市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결국 4월 26일 Area 1 사업(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하였음.
- 2026년까지 프로젝트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Total의 CEO인 패트릭 푸안이 2022년 프로젝트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특히 Area 4와 Coral 프로젝트에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Area 1 LNG 액화플랜트 건설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2020년 12월 계약 체결)이고, 국내 조선사가 Area 1과 Coral 프로젝트 LNG 운반선을 수주한 바 있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지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침.

[표 3] 모잠비크 내 주요 LNG 프로젝트.

사업명	사업주	최종투자결정	생산량(추정)	개발현황	EIU 전망
Area 1	Total SA(26.5%), Mitsui E&P(20%), 모잠비크 석유공사(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etos, 15%), ONGC Videsh(10%), Beas Rovuma Energy (10%), BPRL Ventures (10%), PTTEP(8.5%)	2019. 6월	연 12.9백만 톤	중단	2022년 중 건설 재개 예상
Area 4	Mozambique Rovuma Venture(70%), Galp(10%), 한국가스공사(10%), 모잠비크 석유공사(10%)	연기	연 15.2백만 톤	중단	2024년 착공 예상
Coral	Eni(50%), China National Oil/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20%), 모잠비크 석유공사(10%), Galp(10%), 한국가스공사(10%)	2017. 6월	연 3.4백만 톤	진행 중	2022년 6월 생산 개시

\* ExxonMobil, Eni,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합작회사  
자료: EIU



## 성장잠재력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개발이 중요

- 모잠비크는 UN이 지정하는 최빈국<sup>1)</sup>으로, UNDP에 따르면 인구 62.9%의 일일 소득이 1.9달러(PPP 기준)를 넘지 못하고, 인구의 46.0%(2020년 기준)가 국제빈곤선(일일 소득 1.25달러)을 하회하는 등 대다수 국민의 생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
- 2019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sup>2)</sup>에서 모잠비크는 0.456(181위/189개국)을 기록, 1990년(0.227)에 비해 기대수명(15.6년 ↑), 기대 교육기간(6.2년 ↑), 평균 교육기간(2.7년 ↑), 소득수준(172.7% ↑) 모두 증가하였으나 인력개발 수준은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특히 15~49세 인구의 11.5%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 또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24세 젊은층이 17.7%이고,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이 60.7%에 불과하여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sup>3)</sup>.

[표 4] 2019년 모잠비크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HDI 구성요소

구 분	HDI 지수	HDI 순위	기대수명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1인당 GNI (2017 PPP US\$)
모잠비크	0.456	181	60.9	10.0	3.5	1,25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547	-	61.5	10.1	5.8	3,686

자료: UNDP

## 정책성과

### 2015~35년 국가경제개발전략의 추진 성과는 미미한 수준

- 모잠비크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 및 산업 육성·다변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14년 국가경제개발전략(2015~35년)을 수립하였음.
- 특히,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수익을 산업화에 활용코자 하며, 인적자원, 인프라, 혁신 및 기술, 제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코자 함. 주요 육성 목표 산업은 농업, 어업, 제조업, 광업, 관광업임<sup>4)</sup>.
- 그러나 인프라 등의 투자 지연뿐 아니라 천연가스 개발 관련 전방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어 경제구조의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가 LNG 부문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집중하더라도 카보 델가도 지역의 정정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LNG 투자 지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경제개발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치안 강화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고자 2023년 까지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에서 3년에 한 번씩 결정(2021년 5월 발간 보고서 기준)

2) 기대수명(평균수명), 교육 수준(취학연령의 기대 교육기간,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기간), 소득수준(1인당 GNI)을 기준으로 산정

3) UN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MOZ> (접속일자: 2022.7.25.)

4) AfDB. 2018. Mozambique Country Strategy Paper 2018-2022 Annex X – Country Strategic and Planning System

## 정치안정

###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1975년부터 장기 집권 중

- 집권 여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Mozambican Liberation Front: 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Filipe Nyusi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7년째 장기 집권 중임.
- 2015년 1월 취임한 FRELIMO 소속 Nyusi 대통령은 2019년 10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2020년 1월 15일 2기 행정부 임기를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집권할 예정임.
  - \* 대통령 선거에서 Filipe Nyusi는 73%를 득표하며 제1야당인 모잠비크 국민저항(Mozambican National Resistance: RENAMO) 소속 Ossufo Momade(21%)와 모잠비크 민주운동(MDM) 소속 Daviz Simango(4%)를 크게 앞섰음.
- 다만, RENAMO와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공개 부채 스캔들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 차이로 FRELIMO 내부에 분열이 존재하고 있으며,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의 대테러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Nyusi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약화되어 2024년 임기가 끝나기 전 조기 총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2021년 1월 Nyusi 대통령에 대한 미공개 부채 스캔들 관련 부패 혐의는 Nyusi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당내 부패 척결 노력에 제약 요인이 됨.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FRELIMO가 압승하여 기존 의석 수보다 40석을 더 확보함으로써 여당의 정치기반이 강화되고, Nyusi 2기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음.
  - \* 의회는 단원제이며 250석 중 FRELIMO가 184석, RENAMO가 60석, MDM이 6석을 획득
- 한편, 제1야당인 RENAMO는 기존 의석 수에서 29석이 줄어들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내부 분란으로 당내 결속력도 약해진 상황임.

### FRELIMO와 RENAMO 간의 잠재적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나 점차 해소 중

- FRELIMO와 RENAMO는 1977~92년 진행되었던 모잠비크 내전의 당사자들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중북부 지역 자치권 요구를 거부당한 RENAMO가 민병대를 구성하여 무장 투쟁을 벌이면서 양측 간에 장기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음.
- 2016년 12월 2개월 간의 휴전 합의, 2017년 무기한 휴전 합의 등의 노력 끝에 2019년 8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2020년 6월 RENAMO 前반군 일부 대원들이 무장 해제·해산하고 정부군에 편입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다만, 어느 측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평화협정 파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상호 불신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평화협정 체결 후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일부 반군 세력이 RENAMO Military Junta라는 분파를 조직하여 중부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약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2022년 5월 30일 RENAMO 대표 Ossufo Momade는 반군대원 5,221명 중 68%가 이미 비무장 상태이며, 16개 반군 기지 중 남아있는 4개 기지를 연말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여야의 평화 프로세스 의지를 재확인함.

## 사회안정

### 부의 재분배 실패로 대다수 국민은 열악한 삶을 영위

- 모잠비크는 1992년 내전 종식 이후 199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2%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하였으나, 만연한 부정부패, 저부가가치 원자재 수출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금 회수, 국내산업 육성 부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고성장 시기의 부(wealth)가 사회 전반에 재분배되지 못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HDI)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상위 1% 계층이 세전소득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1.8%에 불과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으며 계층 간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2019년 기준 총인구 대비 전력 보급률(CIA 기준)은 35%(도시 57%, 지방 22%)이고, 인터넷 사용자(UNDP 기준)는 총인구의 10%에 못 미치고 있음. 한편, 비위생적인 물과 낙후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27.6명에 달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열악한 환경에 놓임.
- 홍수, 사이클론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사이클론 이다이케네스, 2020년 열대성 폭풍 찰레인, 2021년 사이클론 엘로이즈, 2022년 태풍 아나가 중·북부 지역을 강타함.
- UNDP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노동가능인구 대비 실업률은 3.2%, 젊은층(15~24세)의 실업률은 6.9%로 실업률 자체는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체 일자리의 83.1%가 취약한 상태이며, 젊은층(15~24세)의 17.7%가 학교 또는 직장에 속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임.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2년 3월 보고서에서 모잠비크에 대한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부여하였으며, ESG 요소가 모잠비크 정부채 신용등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환경: 4등급)**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은 1차산업이며, 이 중 생계형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관개 인프라와 농업기술 부족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함.
- **(사회: 5등급)** 기본적 공공 서비스, 보건, 안전 등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데다 인구가 국토 전역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임. 한편, 이슬람 무장 세력 공격이 잦은 북부 지역에서의 치안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빈곤, 실업, 저개발을 들 수 있음.
- **(지배구조: 5등급)** 2016년 미공개 정부보증부 부채 적발 및 낮은 세계 거버넌스(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점수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금융 관리·보고 등의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사회·환경적 충격에 대한 회복능력 및 위험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총 107개국) 중 5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모잠비크 포함 총 20개국임.

## 사회안정

###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으로 카보 델가도 주의 치안 크게 악화

- 2017년 10월 북부 카보 델가도 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1년 6월 13일까지 895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1,420명 포함 2,887여 명의 사상자, 8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sup>5)</sup>.

\* 2017년 10월 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30명의 무장세력이 Mocimboa da Praia 지구 사령부, Auazi 지구 및 천연 자원 및 환경보호국 제2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 무장세력 3명 및 경찰 2명이 사망하였음. 테러가 발생한 Mocimboa항은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대인 Rovuma 광구와 가장 인접한 상업 항구임.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18.3.2.자에 카보 델가도 주에 대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로, 2018.12.18.자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여행경보단계를 각각 상향 조정하였음.

- 2021년 6월 모잠비크 상공회의소는 테러로 인해 201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55,80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카보 델가도 주의 경제적 피해액은 2.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힘.

- IHS Markit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2017년 5월 소탕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Jabha East Africa)의 잔당이 모잠비크 북부 지역\*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잠입하여 이들 세력에 의해 테러가 발생<sup>6)</sup>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모잠비크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무슬림 대부분이 북부 카보 델가도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전(1977~92년) 중 카보 델가도 주민과 탄자니아 남부 거주인들 간의 교류(결혼, 사업)가 활발하였음.

- 한편, 모잠비크 경찰 당국은 무장단체의 주요 목표가 모잠비크 북부와 탄자니아 남부 지역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Palma 지역의 불안 상황을 조성하고 천연가스 개발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실제로 2021년 3월 24일 Palma 지역의 무장단체 공격으로 인한 Total사의 외국인 관계자 사망 이후, Total사는 Afungi 반도에서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불가항력 선언 후 사업을 중단한 상황임.

- 이들은 루비, 금, 목재, 상아 등의 불법거래와 마약 거래\*로 확보한 자금을 이용하여,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젊은이들을 고임금을 매개로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 2021년 8월 UN 대테러국장은 안보리에서 카보 델가도 지역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진입로 역할과 더불어 Daesh<sup>7)</sup> 조직원들의 환승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IS(이슬람국가)의 표적이 되어 사태 해결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정부가 무장단체 대응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고용한 남아공 민간 군사기업인 Dyck Advisory Group(DAG) 대표는 2020년 7월 소탕 작정 과정에서 상아, 루비, 에메랄드 밀수에 종사하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카보 델가도를 통해 동아프리카 남북을 연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마약(헤로인) 밀수 루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음.

\*\* 카보 델가도 지역의 빈곤율은 53%로 모잠비크 평균(43%) 대비 높음.

5)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2021.6.16.자 주간 보고서

6)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안보 위협, 살인, 불법 무기 소지, 반란 선동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약 120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일부가 탄자니아, 부룬디, 소말리아 국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편, 남아공 경찰청이 남아공 국적자 100여 명이 재정적 지원 등으로 카보 델가도 지역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

7) Daesh는 IS의 바뀌기 전 이름인 ISIS를 아랍어로 옮긴 '다올라 이슬라미야 이라크 샴'의 앞글자만을 딴 명칭으로 IS가 주장하는 '국가'라는 뜻이 없어 국제사회의 IS 척결을 확고히 다지는 의미로 사용됨.

## 사회안정

-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Pemba 인근 지역에도 2022년 5월부터 테러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테러 세력이 활동반경을 카보 델가도 주 남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모잠비크 정부는 북부 지역 경제개발<sup>8)</sup> 추진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개발은 단기간 내 달성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 르완다 정부가 1,000명, 유럽연합이 200~300명 규모의 파병을 승인하였으며, SADC(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는 대기군 파병을 위한 1,200만 달러 예산을 가결함.(표5 참고)

[표 5] 카보 델가도 주 사태 관련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 현황

국가	상세현황	규모	
미국	2021년 3월부터 2달간 해병대 테러 교육	훈련단 10여명	
	2021년 7~8월 전투 사상자 응급처치 및 호송 교육	-	
	2021년 9~10월 특수부대 합동교류훈련(JCET) 시행	미 해군 6함대, 전함 1척	
포르투갈	2021년 4월부터 2026년까지 대테러 교육	훈련단 60여명 (향후 80명으로 증원 추진)	
르완다	2021년 7월부터 배치 중	전투병 2,000여명	
S A D C	보츠나와	2021년 7월부터 배치 중	전투병 296명
	남아공	2021년 7월부터 배치 중	전투병 1,495명
	앙골라	2021년 8월부터 배치 중	훈련단 20명
	탄자니아	2021년 8월부터 배치 중	전투병 277명(해군)
	레소토	2021년 8월부터 배치 중	전투병 70명
	짐바브웨	2021년 8월부터 배치 중	훈련 교관 304명
	말라위	지원 관련 국내적 논의 중	
유럽연합	2021년 11월 훈련단 임무 개시(전술항공 통제, 해병대, 민간인 보호, 인권·인도법 교육)	훈련단 140여명	
브라질	2021년 9월 UN총회 양국 외무장관 면담 당시 군사훈련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Carlos Franca 외무장관)		

8) 2020년 8월 31일 정부는 북부통합개발청(ADIN)을 발족하여, 북부 지역의 통합개발과 청년·여성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직업교육 실시, 국내 피난민 정착 및 테러 공격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025년까지 4억 달러 모금을 추진 중임.

## 국제관계

### 미국, 포르투갈, 중국 등 주요 협력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모잠비크는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 아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식민 종주국이었던 포르투갈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카보 델가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모잠비크에 군인을 파병하여 현지 군인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도로, 중사(重砂)<sup>9)</sup> 탐사, 광산, 전력 등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잠비크의 대규모 영농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의 고금리 차관 도입으로 외채 부담 가중, 중국 기술자 및 노동자들의 현지 진출로 양질의 현지 일자리 감소 등)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하여 모잠비크 국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는 1992년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평화·안보 강화, 경제 성장, 빈곤 감축,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지역통합, 남부 지역 차원의 인프라 연결 등 공동의 목표 아래 설립<sup>\*</sup>되었으며, 현재 16개국<sup>\*\*</sup>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모잠비크가 SADC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SADC 자유무역협정(1996년 체결, 2000년 발효), SADC-EU 경제동반자협정(2016년 체결, 2018년 발효) 등임.

\* SADC의 전신은 남부 아프리카 개발 조정회의(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임.

\*\* 모잠비크,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이셸, 코모로

- 모잠비크는 대부분의 SADC 회원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접경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폭력 사태<sup>10)</sup>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립 전후 시기부터 협력관계를 다져온 탄자니아와도 2010년 Rovuma 강 유니티 브릿지 개통 등에 따른 무역 증가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임. 반면, 짐바브웨와는 2000년 이후 불법 이주인 유입에 따른 갈등 요소가 있음.
- 한편, 카보 델가도 지역에 대한 SADC 차원의 개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적 갈등 발생 가능성 우려 등의 입장 차이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탄자니아나 짐바브웨와 같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9) 하천 바닥의 퇴적물 하부에 쌓인 '무거운 모래'. 집수분지에 분포하는 중금속 자원 탐사에 유용하게 쓰임.

10) 취업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남아공 노동시장에 인접국들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남아공 국내에서 외국인 혐오가 고조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1984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

- 모잠비크는 파리클럽으로부터 1984년 이후 9차례에 걸쳐 리스케줄링과 외채탕감을 받음. 파리클럽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모잠비크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총 10.88억 달러로 이 중 ODA 채무액 8.65억 달러, 그 외 채무액 2.23억 달러임.
- 또한, 파리클럽과 G20는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통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모잠비크에게 채무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었으며, 2021년 4월 원리금 상환 유예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IMF·세계은행의 HIPC 및 MDRI를 통한 외채탕감 수혜

- 모잠비크는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2018년 8월 말 기준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를 통해 43억 달러, 다자채무 탕감 프로그램(MDRI)을 통해 19.64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음.
- 202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31.39억 달러(단기 0.15억 달러, 중장기 31.24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는 없음. 다만, 2021년 3월 22일 기준 상업은행 앞 일부 연체가 있으며, 브라질 앞 연체(128백만 달러) 처리 방안에 대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은닉 부채 스캔들 이후 IMF의 중장기 프로그램 재개

- 모잠비크 정부가 2011~14년 중 국영기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결과 발생한 미공개 정부보증부 대외채무<sup>11)</sup>(유로본드, 대출)의 존재가 2016년에 밝혀지자, IMF, 세계은행, 원조 공여국 등은 모잠비크에 대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 지원, 원조(직접 예산 지원 등) 등을 전면 중단함(단, 코로나19 등 긴급성 자금 지원, 기 승인 사업자금, 기술 지원은 제공 중).
- 이에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로 예정된 국채 이자 지급의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2019년 10월 대주단과의 채무재조정 최종 합의 이전까지 2023년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채무상환 태도가 불량하였음.
- 2022년 5월 IMF의 중장기 프로그램 재개는 다른 공여국들의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IMF 권고안은 부가가치 면제 축소와 같은 조세개혁과 공공부문 임금 지출 축소, 국부펀드(SWF)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Felipe Nyusi 대통령은 보호주의 입법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권고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임.

11) 2013년 국영수산기업인 EMATUM은 참치잡이 어선 및 해상감시선 구입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 조건으로 8.5억 달러의 유로본드(일명 튜나본드)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5억 달러를 어선이 아닌 해양경비선 등 군용 장비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6년 3월 튜나본드 잔액 6.97억 달러를 2023년 만기 도래 국제(액면가의 80% 조건)과 교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한편, 2013~14년 모잠비크 정보국 산하 국영기업 Proindicus(6.2억 달러)와 Mozambique Asset Management(5.4억 대출) 앞 대출 자금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보증부 형태로 군수용품 매입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으며, 2011~14년 중 차입목적이 불분명한 2.2억 달러의 대외차입 존재도 발각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2.07)	7등급 (2021.06)
Moody's	Caa2 (2019.09)	Caa3 (2016.07)
Fitch	CCC (2019.11)	RD (2017.07)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9년 유로본드 채무재조정 최종 합의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유지 중

- 모잠비크 정부가 대주단과 유로본드(MOZAM)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Moody's는 2019년 9월 모잠비크 신용등급을 Caa3에서 Caa2로, S&P는 11월 SD에서 CCC+로, Fitch는 11월 RD에서 CCC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S&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석탄 및 알루미늄 수출 증가와 2023년부터 증가하는 LNG 생산량과 수출량으로 인해 성장률이 4~5%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카보 델가도 지역의 치안 악화로 인한 대규모 LNG 프로젝트 지연과 임금 개혁 및 2024년의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Moody's는 2022년 Area 4 의 LNG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세입 증가와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선 될 공공 거버넌스를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으나, 카보 델가도 지역의 치안 악화로 인한 대규모 LNG 프로젝트 지연과 높은 공공부채 비율(2020년 기준 GDP의 114%)과 외채비중,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와 낮은 외화보유액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음.
- Fitch는 LNG 프로젝트들의 재개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재정수입 증가와 높은 양허성 부채 비율로 인한 낮은 이자비용,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 능력 등을 강점으로 꼽았으나, 낮은 부채상환 능력, 외부자금 조달능력 부족, 높은 정부부채 비율과 외채비중, 북부 지역의 치안 문제와 기후 위기 등을 약점으로 꼽았음.



- 모잠비크 경제는 2021년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실적 개선으로 2%대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고, 2022년에는 고정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와 천연가스 개발,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보다 높은 3%대 후반의 성장률을, LNG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023년부터는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GDP의 20~30% 규모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감소하여 모잠비크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2년 5월 IMF가 신규 지원을 재개하면서 외환유동성이 개선되었음.
- 집권 여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47년 간 장기 집권 중인 가운데 2019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FRELIMO 소속 Filipe Nyusi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9년 8월 FRELIMO와 모잠비크 국민전선(RENAMO)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인구 62.9%의 일일 소득이 1.9달러를 하회하는 최빈국이며,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한편, 북부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테러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LNG 사업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